

아기 호랑이들, 곰 무서운 줄 몰랐다

KIA-두산 시범경기 2차전

신에 위주로 라인업 구성
신범수, 유희관에 멀티안타
최원준 1타점 3루타 등
당찬 공격에 시큰 기대감

‘호랑이 군단’의 시범경기 첫 일정은 1승1패로 끝났다.

KIA 타이거즈가 1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디펜딩 챔피언’ 두산 베어스와의 시범경기 2차전에서 2-4 패를 기록했다. 전날 7-4로 승리를 거뒀던 KIA는 1승1패로 두산과의 기싸움을 끝냈다.

했지만 신에 타자들의 움직임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KIA의 선발 라인업은 신에 선수를 위주로 짜였다. 김기태 감독의 ‘격일제’ 근무 방식에 따른 것이다.

김 감독은 전날 “야수진 밀그림은 그려졌다. 시범경기에서는 격일제로 나갈 것이다. 오늘 선발로 나온 선수는 내일 교체로 나올 것이다”며 “날씨·시간 등 다른 상황에서 경기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 점점 이닝을 늘려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4일 주축 선수들로 라인업을 꾸렸던 KIA는 이날 1번 노수광(중견수)-2번 신범수(지명타자)-3번 최원준(유격수)-4번 김석환(좌익수)-5번 이인형(1루수)-6번 이준호(우익수)-7번 홍재호(2루수)-8번 한승택(포수)-9번 최병연(3루수)의 라인업을 제출했다.

반면 두산은 토타자 박건우를 시작으로 오재원-민병헌을 나란히 배치했고, 김재환-에반스-오재일에 이어 7번에는 허경민을 넣는 등 4명의 WBC 대표를 선발 라인업에 포진했다.

이튿날 경기장에서 두산의 절대적인 우위가 점쳐진 경기였지만 KIA의 신에 타자들은 야무진 공격으로 팬들의 박수를 이끌어냈다. 이날 KIA가 뽑은 2점도 주전급 선수들이 아닌 선발 멤버들이 만든 것이다.

0-1로 뒤진 1회 1사에서 지명타자로 나온 고졸 2년 차 신범수가 두산 유희관을 상대로 우전 안타를 때렸다. 2사 1루에서는 ‘4번 타자’ 역할을 맡은 김석환이 안타를 수확했다. ‘고졸 루키’인 좌타자 김석환은 좌측으로 공을 보내면서 첫 선발경기, 첫 타석에서 안타를 신고했다.

0-2로 뒤진 3회에는 고졸 2년 차 최원준이 안타 행진에 동참했다. 앞서 신범수가 두 번째 타석에서도 우전 안타를 날리며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1사 1루에서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선 최원준은 우익수 키를 넘기는 1타점 3루타로 1-2를 만들었다.

이준호의 몸에 맞는 볼로 시작한 4회, 홍재호의 내야안타로 무사 1-2가 됐다. 한승택의 번트 실패 뒤 병살타가 나왔지만 2사 3루에서 두산 투수 박지훈의 보크가 나오면서 2-2동점이 됐다. 노수광의 연속 안타에 이어 신범수가 볼넷을 골라냈다. 신범수는 3타석 모두 출루에 성공했지만 후속타 불발로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다.

2이닝을 깔끔하게 막았던 고졸 2년 차 좌완 정동현이 6회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겨놓고 3루타 하나 포함 연속 3안타를 허용하면서 2-4. 이후 KIA의 주전급 선수들이 타석에 투입됐지만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다.

첫 타석에서 스탠딩 삼진으로 물러난 김주찬이 두 번째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을 기록했다. 서동욱과 김선빈의 연속 볼넷으로 만들어진 9회 무사 2-3루에 대타로 들어선 나지완은 3루수 플라이로 아웃됐고, 전날 홈런포로 신고식을 치렀던 최형우도 중견수 플라이와 2루수 땅볼에 그쳤다. 버나디나 역시 전날에 이어 안타를 신고하지 못하면서 경기는 2-4패로 끝났다.

한편 해결사 역할을 하지 못한 최형우, 나지완, 버나디나는 이날 경기가 끝난 뒤 특별타격 훈련을 하며 16일 kt전을 대비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신범수가 1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두산과의 시범경기에서 유희관을 상대로 안타를 기록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피겨 차준환 세계주니어선수권 첫 메달 보인다

쇼트 82.34점으로 2위

피겨 남자 싱글의 ‘희망’ 차준환(휘문고)이 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주니어피겨선수권대회 쇼트프로그램에서 자신의 개인 최고점을 경신하며 한국 남자 선수 역대 첫 메달에 한 걸음 바짝 다가섰다.

차준환은 15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대회 남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45.27점에 예술점수(PCS) 37.07점을 합쳐 82.34점을 받았다.

이번 점수는 차준환이 지난해 9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2016-2017 ISU 주니어 그랑프리 3차 대회 때 작성한 자신의 기존 ISU 공인 최고점인 79.34점을 무려 3.0점이나 끌어올린 것이다.

특히 차준환이 이날 기록한 82.34점은 ISU 역대 주니어 쇼트프로그램 역대 최고점인 81.37점을 0.97점 끌어올린 신기록이다.

종전 기록은 러시아의 드미트리 알리에프가 지난해 12월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작성했다. 알리에프는 쇼트프로그램에서 41번째 순서로 출전을 준비하고 있다.

45명의 출전 선수 가운데 31번째로 출전한 차준환은 영화 코러스라인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에 맞춰 첫 점프 과제인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기본점 10.30점)부터 완벽하게 뛰었다.

이어 트리플 악셀(기본점 8.50점)도 깨끗하게 성공한 차준환은 체인지 풋 스피스에 이어 트리플 루프(기본점 5.10점)도 성공하며 최고점을 예약했다.

차준환은 플라이 카멜스핀에 이어 스텝시퀀스와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피노로 연기를 마친 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은반을 내셨다. /연합뉴스

황재균 멀티히트

초청선수로 메이저리그 스프링캠프를 치르는 황재균(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이 시범경기 두 번째 멀티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를 쳤다.

황재균은 15일 미국 2017년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전에 6번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를 기록했다.

3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이다 교체 출전한 13일 애리조나전에서 1타수 무안타에 그쳤던 황재균은 다시 안타 생산을 시작했다. 또한 3월 3일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전(2타수 2안타) 이후 8경기 만에 멀티히트다.

황재균은 1회 1사 2루에 첫 타석에 들어서 유격수 땅볼에 그쳤다. 하지만 3회 선두타자로 나서 클리블랜드 선발 조시 톨린을 공략해 투수 옆 내야안타로 출루했다.

5회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난 황재균은 8회초 크리스 나르베손의 커브를 받아쳐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쳤다. 황재균은 2루를 노리다 회사해 장타를 만들지는 못했다.

황재균의 시범경기 타율은 0.318에서 0.346(26타수 9안타)으로 올랐다.

샌프란시스코는 클리블랜드와 28안타를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6-5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KIA 한승혁



두산 이동원

156...157km...9회 가속구쇼

KIA 한승혁, 두산 이동원에 판정승

챔피언스 필드에서 9회 스피드 싸움이 펼쳐졌다.

KIA와 두산은 시범경기 첫 상대로 14·1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격돌했다. 2연전을 치르는 동안 두 차례 마운드를 향해 사람들의 탄성이 쏟아졌다. 관람석뿐만 아니라 덕아웃에서도 ‘우와’하는 소리가 나왔던 이유. 바로 스피드였다.

14일 7-4로 앞서 9회 KIA 한승혁이 경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운드에 올랐다. 초구부터 152km의 가속구를 던진 한승혁은 곧 전광판에 157km를 찍으면서 화제의 인물이 됐다. 이날 14개의 직구만으로 3개의 아웃카운트를 잡아낸 한승혁은 남다른 스피드로 세이브를 수확했다.

15일에는 두산 이동원이 9회의 주인공이 됐다. 4-2로 팀이 앞선 9회말 마운드에 오른 이동원이 초구부터 150km를 넘는 직구를 뿌리면서 이목을 끌었다. 그리고 이내 전광판의 스피드는 158km까지 기록했다.

한승혁과 이동원의 공식 기록은 각

각 156km와 157km. 두 사람은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 이미 154km와 155km를 찍으며 화제가 됐다.

공은 이동원이 더 빨랐지만 기록으로는 한승혁의 승리였다. 한승혁은 제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1이닝 1탈삼진 무실점으로 임무를 완수했다. 하지만 이동원은 끝까지 마운드를 책임지지 못했다.

스피드에 비해 부족한 제구 탓에 2연속 볼넷을 허용한 이동원은 폭투도 2개를 기록하면서 아웃카운트 하나 잡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베테랑 이현승이 출격해 두산의 승리를 지키기는 했지만 아쉽게 끝난 이동원의 가속구쇼였다.

한편 이날 KIA는 선발로 예정됐던 김진우가 경기 직전 왼쪽 요구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두 번째 투수로 대기했던 김윤동을 선발로 투입했다. 김진우는 병원 검진 결과 왼쪽 요구리 염좌 진단을 받으면서 시범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이닝 퍼펙트 박지훈 “야구 오래 해야겠다”

수술·군 복무 마치고 복귀...야구장 등 달라진 환경 놀라워

“야구 오래 해야겠어요.”

KIA 타이거즈 ‘에비역’ 박지훈은 지난 14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두산과의 시범경기를 통해 복귀전을 치렀다. 결과는 1이닝 퍼펙트. 9개의 공으로 탈삼진 두 개 포함, 3개의 아웃카운트를 만들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이날 사람들의 시선은 156km를 찍은 한승혁에게 집중됐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따지면 박지훈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줘도 될 피칭이었다.

박지훈은 “집착하게 하려고 했다. 처음 던졌을 때보다 긴장이 됐다”고 챔피언스필드 첫 등판을 이야기했다.

2012년 단국대를 졸업하고 KIA에 입단한 그는 올해로 프로 6년 차. KIA 선수로 된 시간보다 떠나있던 시간이 더 많다. 2014년 스프링캠프에서 팔꿈치 부상을 입은 박지훈은 이해 5월 수술을 한 뒤 합평에서 공의 군무를 해왔다.

지난 12월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박

지훈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다. 예전의 낡고 비좁은 무등경기장이 아닌 웅장한 챔피언스필드가 자신이 다시 뭘 무대가 됐고, 사령탑을 비롯해 선수단 구성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메이저리그 수준의 라커룸과 최신식 경기장에서 야구를 다시 시작한 박지훈은 “야구 오래 해야겠다”며 달라진 환경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했다.

떠나있던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변하지 않은 것은 있다. 박지훈은 14일 첫 등판에서 여전한 포크볼의 위력을 과시했다.

“감이 어디 가겠느냐?”라면서 웃은 박지훈은 “군복무를 하면서도 합평에서 꾸준히 연습을 해와서 감각적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챔피언스필드 마운드가 여색하지는 않았다. 예전에 문학구장에서 경기하던 느낌이었다”며 “아직 정식 경기가 아닌 만큼 완벽하게 만들자는 생각으로 준비하겠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잘 보내겠다. 남은 시범 경기에서는 직구 제구에 가장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